# 법률업무와 인공지능

작가 김경진 변호사

# 서 문

법률가의 책상 위에 새로운 동료가 앉았다.

2024년을 전후하여 대형 언어모델(LLM)은 더 이상 기술업계만의 화두가 아니게 되었다. 의료, 금융, 교육 할 것 없이 전 산업이 AI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방대한 텍스트를 다루고, 논리적 추론과 정밀한 언어 구사가 생명인 법률업무야말로 LLM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많은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판례 검색에 써볼까, 소장 초안을 맡겨볼까, 계약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의뢰인의 비밀은 안전한가.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법률가들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첫 발을 위해 쓰였다. 필자는 30여년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가 법률업무의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률 리서치에서 판례와 법령을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민사·형사·행정 소송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논증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에서 핵심 사실관계를 추출하고 모순점을 발견하는 전략, 계약서의 리스크 조항을 식별하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M&A 실사와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실무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루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augment)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LLM이 생성한 모든 결과물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야 하며, 최종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 둘째,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롬프트와 워크플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내일 당장 사무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을 지향하였다.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법률 서면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법, 대량의 PDF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AI에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기법, NotebookLM과 Claude·ChatGPT를 연계하여 수백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처리하는 협업 프로세스까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난관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법률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책이 동료 법률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제1부 AI 시대의 핵심 11

1. AI, 핸드폰, 컴퓨터/ 텍스트입력과 음성입력 각각 가능 누구나 접속 가능 11
2. 다양한 AI 플랫폼 13
3. LLM은 자연어 처리(NLP)의 핵심 14
4. 인공지능은 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까지 한다 16
5. AI는 제작에서도 활용된다 17
6. AI의 핵심 — 정보 전달을 넘어 맥락 이해와 창조 18
7.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8대 분야 20
8. 비즈니스 & 금융 분야에서 AI가 대체하는 전문가 역할 22

## 제2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25

1. 인공지능은 틀릴 수 있다 25
2. 틀려도 양과 질에서 인간의 작업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27
3. 비판적인 관점에서 팩트 체크해야 한다 28
4. 여러 인공지능에게 동시에 답을 구해야 한다 30
5. 유료 사용을 강하게 권장한다 (4개를 사용해도 12만원이다) 32

## 제3부 AI는 GPU 기반 / 시력이 매우 좋다 34

1. AI의 눈은 GPU에서 태어났다 34
2. 인공지능 OCR 기능 활용 가이드 34
3. 손글씨 메모 — AI에게 읽히는 아날로그 36
4. AI와 함께한 13개국 배낭여행 — 실전 체험기 37
5. 유럽 건축물 앞에서 — AI 이미지 분석 실습 38
6. 거리 풍경 사진 — AI 이미지 인식과 상황 분석 38
7. 외국어 메뉴판 — AI 번역의 실전 38

## 제4부 인공지능 활용 TOP 10 41

## 제5부 녹음 녹취와 전사문을 활용 44

1. 녹음에서 전사문, 전사문 그리고 AI를 활용한 가공 44

2. 녹음 전사문의 AI 재가공을 통한 법률 서류 작성 실무 활용 46
3. 증거 관련 서면 48
4. 계약 및 합의 관련 활용 50
5. 의뢰인 소통 및 사건 관리 50
6. 결론 51
**제6부 변호사 사무실을 위한 LLM 프로젝트 활용 완전 가이드 52**
1. LLM 프로젝트 기능이란 무엇인가 52
2. 도구별 프로젝트 생성 및 자료 업로드 방법 54
3.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구체적인 활용법 57
4. 자문 업무에서의 활용 60
5. 주의사항 및 윤리적 고려 61
**제7부 변호사 계약 자문 업무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법 62**
1. 계약서 생성 및 초안 작성 62
2. 위험 탐지 및 리스크 분석 64
3. 수정 및 협상 지원 66
4. 특수 조항 심층 검토 67
5. 비교 분석 및 정보 정리 69
6. 실무 활용 시 유의사항 71
**제8부 AI가 생성물에 대한 팩트 체크 72**
1. 팩트 체크 전용 도구의 활용 72
2. 의심스러운 부분 선별 검증 72
3. 할루시네이션과 학습 데이터 오류 72
4. AI 맹신의 경계와 주체성 유지 73
**제9부 LLM이 제공하는 딥 리서치 기능 74**
**제10부 구글 검색 URL, 유튜브 검색 URL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76**

**제11부 대규모 법률 자료 분석을 위한 노트북LM(NotebookLM)과 그래빗(Grabbit) 활용법 78**

1 노트북LM(NotebookLM)의 정의와 변호사 업무에서의 핵심 기능 78

2 크롬 브라우저 및 그래빗(Grabbit) 확장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방법 80

3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글 및 유튜브 검색용 URL 목록 생성 방법 81

4 그래빗을 이용한 대규모 자료 수집 및 노트북LM 소스 일괄 등록 과정 83

5 구글 제미니와 노트북LM 연동 및 전문 보고서 작성 워크플로우 84

6 실전 활용을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 요약 86

**제12부 프롬프트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때 88**

**제13부 기타 알아두면 유용한 사용법 90**

1. 음성/구술 방식을 통한 AI 문서 작성 90

2. 기억 환기형 AI 활용법 7가지 90

3. 일정 충돌을 해결하는 만능 스케줄러 90

**제14부 그림 시각화와 인공지능 인포그래픽 92**

1. NotebookLM 인포그래픽 기능이란 92

2. Nano Banana Pro 92

# 제1부 AI 시대의 핵심

## 1. AI, 핸드폰, 컴퓨터/ 텍스트입력과 음성입력 각각 가능 누구나 접속 가능

**AI**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기만 있으면 누구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일반인도 쉽게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AI**를 사용하려면 파이썬**(Python)**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했고, **GPU** 서버를 구축해야 했으며, 복잡한 명령어 체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Chat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보내듯이, 대화창에 한국어로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인가 하면,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뎀을 설치하고, 복잡한 접속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이파이에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AI**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장벽이 사라지고,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성으로도 **AI**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보드 타이핑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운전 중인 사람이나,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리야" 또는 "헤이 구글"처럼 음성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ChatGPT** 앱에서도 음성 대화 기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고, **Claude**도 음성 모드를 지원합니다.

실생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에서 **Claude** 앱을 열고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선물로 뭐가 좋을까**?**"라고 말하면, **AI**가 나이에 맞는 선물 추천을 해줍니다. 레고 세트부터 과학 실험 키트, 인기 있는 어린이 도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도,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비서를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접속 기기의 다양성은 장소의 제약도 없앤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넓은 화면으로 **AI**와 함께 보고서를 쓰고,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고, 카페에서는 태블릿으로 **AI**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있는 조수가 된 셈입니다.

## 2. 다양한 AI 플랫폼

현재 사용 가능한 여러 **AI** 서비스의 실제 화면이 한눈에 보입니다.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등 다양한 **AI** 챗봇의 인터페이스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I** 서비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비유하면, 포털 사이트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검색하려면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다음, 빙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챗봇도 여러 회사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AI**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ChatGPT**는 **OpenAI**가 만든 서비스로, 대화형 **AI**의 원조격입니다. 가장 먼저 대중화되었고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글쓰기, 코딩, 이미지 생성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Claude**는 **Anthropic**이 만든 서비스로, 긴 문서를 분석하거나 정교한 글을 쓰는 데 특히 강합니다. **200**페이지짜리 **PDF**를 통째로 올리고 "이 계약서에서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찾아줘"라고 하면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Gemini**는 구글이 만든 서비스로, 구글 검색, **Gmail**, 구글 드라이브와 자연스럽게 연동됩니다.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난달 회의록 찾아서 요약해줘"와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의 사용법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입니다. 대화창이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어(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AI**가 답변합니다. 카카오톡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AI**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AI**를 쓸 줄 알게 되면 나머지도 금방 익힐 수 있는데, 마치 삼성 스마트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꿔도 기본 원리는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 **AI**를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정보 검색이 필요할 때는 **Gemini**를, 긴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때는 **Claude**를, 이미지 생성이 필요할 때는 **ChatGPT**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필, 볼펜, 만년필을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단한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AI**에서든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나는 **50**대 직장인인데, 퇴근 후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알려줘.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부탁해."

이 하나의 질문을 **ChatGPT, Claude, Gemini**에 각각 넣어보면 조금씩 다른 스타일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3. LLM은 자연어 처리(NLP)의 핵심

이 내용은 **AI**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이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핵심이라는 것인데, 이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어"란 무엇일까요**?** 자연어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서류 내일까지 제출해야 해",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가져가" 같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자연어입니다. 반대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것은 사람이 컴퓨터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자연어 처리**(NLP)**"는 컴퓨터가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도 자연어 처리 기술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자동 번역기나, 스팸 메일 필터링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한국어를 넣으면 어색한 영어가 나오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LLM**이 등장하면서 자연어 처리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LLM**은 말 그대로 "거대한 언어 모델"입니다. "거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수백만 권의 책, 논문, 뉴스 기사, 위키백과 등을 통째로 학습했습니다. 둘째, 모델의 크기(매개변수)가 엄청납니다. **GPT-4**는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뇌의 신경 연결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는 연결고리가 수천억 개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의 자연어 처리 **AI**가 "영한사전"이었다면, **LLM**은 "한국에서 **30**년 살면서 한국 문화까지 완벽히 이해한 외국인"과 같습니다. 영한사전은 "**How are you?**"를 "어떻게 있니**?**"로 직역하지만, 한국 생활 **30**년차 외국인은 "잘 지내**?**"라고 자연스럽게 번역합니다. 더 나아가 "밥 먹었어**?**"가 실제로는 안부 인사라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LLM**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학습 방식에 있습니다. **LLM**은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___"이라는 문장에서 빈칸에 뭐가 올지 예측하

는 연습을 수조 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 맥락, 상식, 논리,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예시로 **LLM**의 자연어 이해력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줘: '부장님이 오늘 회의에서 네 보고서를 칭찬하더라, 근데 좀 길다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AI**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보고서를 줄이라는 간접적 피드백"이라는 맥락까지 파악해서 설명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LLM** 기반 자연어 처리의 힘입니다.

## 4. 인공지능은 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까지 한다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인공지능은 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능력을 **01, 02, 03** 번호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01)**는 "다양한,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입니다. **AI**는 의학, 법률, 과학, 역사, 문학, 요리,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3**기 환자의 일반적인 치료 옵션을 설명해줘"라고 물으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의 선택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줍니다. 물론 실제 의료 판단은 의사에게 맡겨야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02)**는 "**LLM**이 언어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과일 사과"인지 "용서를 구하는 사과"인지를 문맥에서 정확히 판단합니다. "팀장님한테 사과하는 이메일 좀 써줘"라고 하면 과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03)**는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분류하고, 요약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I**는 단순히 기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통해 이 세 가지 능력을 한 번에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단을 일주일치로 짜주고(지식), 각 메뉴를 선택한 의학적 근거를 설명해줘(맥락 이해). 그리고 이걸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표로 정리해줘(생성)."

이 하나의 질문에 **AI**는 세 가지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답합니다. 세상의 의학 지식을 활용하고, 질문자의 요구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표)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 5. AI는 제작에서도 활용된다

이 내용은 **AI**가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다, 매력을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검색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미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주듯이, **AI**도 이미 있는 정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AI**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AI**의 제작 능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머리가 좋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가 좋은 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AI**에게 "우리 동네 빵집 홍보 포스터 문구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갓 구운 행복,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같은 카피를 생성합니다. 이건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AI**가 학습한 언어 패턴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작 능력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됩니다. 글쓰기만이 아닙니다. 코드를 짜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영상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나는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홍보 문구 **5**개와, 가게 메뉴판에 쓸 감성적인 소개 문구 하나를 만들어줘."

**AI**는 이 요청을 받으면 전통시장의 분위기, 떡볶이의 매력,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특성, 메뉴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AI**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팀 회식이 있는데, 참석 안내 이메일을 작성해줘. 장소는 강남역 근처 한우 전문점이고, 시간은 저녁 **7**시야. 참석 여부를 화요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켜줘."

이렇게 하면 **AI**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적절한 톤과 형식을 갖춘, 세상에 하나뿐인 이메일을 만들어냅니다.

## 6. AI의 핵심 — 정보 전달을 넘어 맥락 이해와 창조

이 내용은 **AI**의 세 가지 차원을 더욱 명확히 구분합니다.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머리가 좋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와 "머리가 좋은 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은 "백과사전"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약 **950**만 명입니다"처럼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검색엔진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맥락 이해는 "경험 많은 상담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사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단순히 "퇴사율 통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업무 과중인가요, 인간관계 문제인가요**?**"라고 맥락을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창조는 "뛰어난 비서 겸 작가 겸 디자이너"입니다.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는데 발표자료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구성해줍니다.

"머리가 좋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AI**의 범용 지능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AI**가 법률 상담도 하고, 요리 레시피도 알려주고, 코딩도 하고, 시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변호사이면서 요리사이면서 프로그래머이면서 시인인 사람인 셈인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AI**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다"는 관점은, **AI**가 다른 도구와 결합하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AI**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인터넷 검색과 결합하면 최신 정보까지 파악하고, 엑셀과 결합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미지 생성 도구와 결합하면 그림을 그리고, 이메일과 결합하면 자동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의 지난달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맥락 이해),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상위 **5**개를 알려주고(정보 전달), 이번 달 프로모션 기획안을 작성해줘(창조)."

하나의 요청 안에 정보 전달, 맥락 이해, 창조가 모두 들어 있고, **AI**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 7.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8대 분야

여기서는 **AI**가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8**개 카테고리로 정리합니다. **1**번 문학, **2**번 자연학, **3**번 예술 및 교육, **4**번 통신 및 컴퓨팅, **5**번 여행 및 관광, **6**번 의학 및 건강, **7**번 지역 및 활동장소, **8**번 기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류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AI**는 특정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문학 분야에서 **AI**는 글쓰기의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소설의 플롯을 구상하거나, 시를 쓰거나, 에세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문법을 교정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더 인상적으로 다듬어줘"라고 하면 즉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2.** 자연학 분야에서 **AI**는 과학적 개념 설명, 실험 데이터 분석, 연구 논문 검토 등을 돕습니다. "광합성의 원리를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수준에 맞춰 설명해줍니다.

**3.** 예술 및 교육 분야는 **AI**의 창작 능력이 가장 빛나는 영역입니다. 그림 생성, 음악 작곡, 교육 커리큘럼 설계, 퀴즈 제작 등이 가능합니다.

**4.** 통신 및 컴퓨팅 분야에서 **AI**는 코드 작성,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문제 해결 등을 도와줍니다.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도 "간단한 가계부 앱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 및 관광 분야에서 **AI**는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워줍니다. "**70**대 부모님과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줘. 걷기가 많지 않은 코스로 부탁해"라고 하면 상세한 일정표를 만들어줍니다.

**6.** 의학 및 건강 분야에서 **AI**는 건강 정보 제공, 증상 분석, 운동 루틴 설계, 식단 관리 등을 돕습니다. 물론 전문 의료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건강 관리의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7.** 지역 및 활동장소에서는 맛집 추천, 문화시설 안내, 지역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8.** 기타로 분류된 영역은 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줘. 아침에는 건강한 운동(건강), 점심에는 맛집 탐방(지역), 오후에는 미술관 관람(예술),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서 발표할 책 요약(문학)을 도와줘."

하나의 요청으로 **8**개 분야 중 **4**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8. 비즈니스 & 금융 분야에서 AI가 대체하는 전문가 역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에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가 역할을 나열합니다. 투자 분석가,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 금융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트렌드 분석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대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AI**를 통해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이런 전문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가 역할에서 **AI**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줍니다. 물론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분석 과정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경영 컨설턴트 역할에서 **AI**는 사업 계획서 작성, **SWOT** 분석, 경쟁사 분석,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등을 도와줍니다. 맥킨지에 수억 원을 주고 맡기던 일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역할에서 **AI**는 타겟 고객 분석, 광고 카피 작성, **SNS** 콘텐츠 기획, 이메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 전문가 역할에서 **AI**는 대출 조건 비교, 보험 상품 분석, 세금 절감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에서 **AI**는 엑셀이나 **CSV**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시각화하고, 예측 모델을 제안합니다.

트렌드 분석가 역할에서 **AI**는 최신 시장 트렌드, 소비자 행동 변화, 기술 발전 방향 등을 분석합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경영 컨설턴트처럼 우리 카페의 **SWOT** 분석을 해주고, 마케팅 전문가처럼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고, 트렌드 분석가처럼 **2026**년 카페 업계 트렌드를 알려줘."

이 하나의 프롬프트로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 트렌드 분석가 세 명을 동시에 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 남짓의 AI 구독료로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 셈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가장 큰 기회이며, 특히 자영업자와 1인 기업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입니다.

# 제2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 1. 인공지능은 틀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대원칙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자신 있는 어조로 대답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AI**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납득이 됩니다. **AI**는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정답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AI**는 시험을 볼 때 정답을 확실히 아는 학생이 아니라, 수만 권의 책을 읽은 뒤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추론하는 학생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지만, 때로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틀린 답을 쓰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김구 선생의 저서 목록을 알려줘"라고 물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백범일지》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책 제목을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조국》**(1945)**"처럼 있을 법한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AI**는 이것을 거짓말하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상 "김구"라는 인물과 "독립운동" "조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연결되니까, 그럴듯한 조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0**다**12345** 판결의 요지를 알려줘"라고 물으면,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번호, 재판부, 판결 요지까지 완벽하게 꾸며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변호사가 **ChatGPT**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학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과 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AI**가 "네, 괜찮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AI**의 답변을 "출발점"으로 삼되, "종착점"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무조건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로, **AI**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의 정의를 알려줘. 정확한 조문 번호와 함께 알려주고, 네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표시해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표시해주는 경우가 많아져서 오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 2. 틀려도 양과 질에서 인간의 작업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짝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AI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10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합시다. 사람이 직접 읽으면서 문제 조항을 찾으려면 최소 반나절, 꼼꼼히 하면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AI에게 이 계약서를 주고 "을에게 불리한 조항을 모두 찾아서 위험도를 상·중·하로 분류해줘"라고 하면 2~3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AI가 찾은 20개의 문제 조항 중 2~3개가 틀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17~18개는 정확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100페이지를 다 읽는 것보다, AI가 추려준 20개를 사람이 검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것을 수치로 생각해봅시다. 사람이 100페이지를 직접 검토하면 8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90%라고 합시다(사람도 피로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AI에게 먼저 맡기고 사람이 검증하면 총 1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95%가 됩니다. 시간은 8분의 1로 줄고, 정확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틀리니까요. 특히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가 늘지만, AI는 새벽 3시에도 낮 12시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칼럼 초안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백지 상태에서 1,800자 칼럼을 쓰려면 보통 3~4시간은 걸립니다. 자료 조사, 구성, 초안 작성, 퇴고까지 포함하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최근 EU AI Act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AI 기본법과 비교하는 칼럼 초안을 써줘"라고 하면 1분 안에 초안이 나옵니다. 이 초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것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전체 작업 시간이 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번역 작업은 더 극적입니다. 영문 논문 30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전문 번역가도 2~3일이 걸립니다. AI는 5분 안에 전체를 번역합니다. 번역 품질이 80~90%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이것을 다듬는 데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3일 작업이 반나절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핵심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다음 영문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법률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 용어 관행에 맞춰서 번역하고, 번역이 애매한 부분은 원문을 괄호로 병기해줘."

이렇게 하면 AI의 번역 결과물을 사람이 검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3. 비판적인 관점에서 팩트 체크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의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AI가 틀릴 수 있으니(1번), 빠르게 결과물을 받되(2번),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3번)는 것입니다.

"비판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AI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AI의 답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런가?"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건강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이게 사실일까?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보도했지?"라고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AI 리터러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I에게 출처를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한 내용의 출처가 뭐야?"라고 물으면 AI가 참고한 정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AI가 가짜 출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므로, 제시된 출처를 실제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차 검증입니다. AI가 알려준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숫자, 날짜, 고유명사, 법률 조문 등 정확성이 중요한 사실 정보는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AI 스스로에게 검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가 방금 작성한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 있는지, 근거가 약한 주장이 있는지 점검해줘."

놀랍게도 AI는 자기 자신의 답변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글을 쓴 뒤 시간을 두고 다시 읽으면 오타가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AI에게 "비판자 역할"을 부여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대한민국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단, 각 항목마다 '확신도'를 상·중·하로 표시해줘. 네가 확실히 아는 내용은 '상',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은 '중', 추측에 가까운 내용은 '하'로 표시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불확실한지를 스스로 표시해주므로, 사용자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팩트 체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숫자는 반드시 확인합니다(통계, 날짜, 금액 등). 고유명사는 반드시 확인합니다(인물명, 기관명, 법률명 등). 인용문은 반드시 확인합니다(**AI**가 만들어낸 가짜 인용일 수 있음). 최신 정보는 반드시 확인합니다(**AI**의 학습 데이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이 네 가지만 습관화해도 **AI** 활용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4. 여러 인공지능에게 동시에 답을 구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하나의 **AI**만 쓰지 말고, 여러 **AI**에게 같은 질문을 동시에 던져서 답변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팩트 체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 **AI**에게 물어야 할까요? 각 **AI**는 서로 다른 회사가 서로 다른 데이터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따라서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의사의 진단만 믿지 말고, 다른 의사에게도 소견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질문을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네 곳에 동시에 입력합니다. **ChatGPT**는 거시경제 지표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고, **Claude**는 정책적 요인을 더 강조할 수 있고, **Gemini**는 구글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고, **Copilot**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답변을 비교하면 매우 유용한 결과를 얻습니다. 네 곳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 곳만 언급하고 나머지 세 곳은 말하지 않는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신호이므로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탭을 동시에 열어놓고, 같은 질문을 복사해서 네 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1~2**분 안에 네 개의 답변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답변을 비교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골라냅니다.

더 고급 활용법도 있습니다. 한 **AI**의 답변을 다른 **AI**에게 검증시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다음은 다른 **AI**가 작성한 '**EU AI Act** 요약'이야. 이 내용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다른 **AI**의 답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AI**끼리 서로를 교차 검증하게 되어, 한 **AI**의 환각을 다른 **AI**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 심사에서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최소한 두 개의 **AI**에게라도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투자**,** 법률**,** 건강 등**)**에 관한 질문이라면 반드시 복수의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 **AI**의 답변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 신문의 기사만 읽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 5. 유료 사용을 강하게 권장한다 (4개를 사용해도 12만원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입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유료 버전을 쓰라는 것이고, 그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AI 서비스 4개를 모두 유료로 구독해도 월 1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먼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료 버전은 AI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시승에서 주차장만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려봐야 그 차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AI도 유료 버전을 써봐야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의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사용량 제한이 다릅니다. 무료 버전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금방 한도에 도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면 작업 흐름이 끊기고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셋째, 부가 기능의 차이입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파일 업로드(PDF, 엑셀, 이미지 등), 이미지 생성, 웹 검색, 코드 실행, 음성 대화 등 핵심적인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보겠습니다. ChatGPT Plus가 월 20달러(약 2.7만원), Claude Pro가 월 20달러(약 2.7만원), Gemini Advanced가 월 19,900원, Copilot Pro가 월 20달러(약 2.7만원)입니다. 네 개를 모두 구독하면 약 10~12만원 정도입니다.

AI 유료 구독 12만원으로 이 모든 전문가의 역할을 24시간 365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AI가 절약해주는 시간을 환산해보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만 절약된다고 해도, 월 20일 근무 기준 20시간입니다. 시급 2만원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의 시간을 아끼는 셈이니, 12만원 투자로 40만원의 시간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극적입니다. 매장 홍보 문구, SNS 콘텐츠, 고객 응대 매뉴얼, 사업 계획서, 세금 관련 질문 등을 모두 AI에게 맡길 수 있으니,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프롬프트 예시로,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한 고급 활용법입니다.

"첨부한 **PDF** 파일**(100**페이지 사업보고서**)**을 분석해서**,**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투자 시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줘**."**

이런 작업은 긴 문서를 처리해야 하므로 무료 버전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유료 버전에서야 비로소 **AI**의 진짜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월 **12**만원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가성비 높은 자기 투자입니다**.**

# 제3부 AI는 GPU 기반 / 시력이 매우 좋다

## 1. AI의 눈은 GPU에서 태어났다

인공지능의 시각 능력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AI** 연구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GPU**로 반복 학습시키면서 **AI**는 형태, 색상, 패턴, 질감 등 시각적 특징을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시각 훈련이 **AI** 발전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AI**는 "눈"이 매우 좋습니다. 사진, 그림, 문서 이미지, 손글씨, 의료 영상 등 거의 모든 시각 자료를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분야에서도 강력한 이유는, 태생 자체가 "보는 훈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 2. 인공지능 OCR 기능 활용 가이드

**OCR**이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즉 광학 문자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이나 스캔 이미지 속의 글자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이 **OCR** 기능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는지 보여주는 가이드입니다.

**OCR**이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해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이 서류를 스캔한 **PDF**, 스마트폰으로 찍은 명함, 화이트보드에 적은 회의 내용, 오래된 책의 사진, 외국 식당의 메뉴판, 손으로 쓴 메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미지 속 글자는 복사하거나 검색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림"일 뿐이니까요.

예전의 **OCR**은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인쇄된 문서는 그럭저럭 인식했지만, 손글씨, 비스듬하게 찍힌 사진, 구겨진 서류, 다국어가 섞인 문서 등은 인식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김경진"을 "김경잔"으로, "계약서"를 "게역서"로 인식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AI** 기반 **OCR**은 차원이 다릅니다. **AI**는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합니다. 글자가 조금 흐려도 "이 문장의 맥락상 이 단어는 '계약서'가 맞겠다"고 판단합니다. 손글씨도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섞인 문서도 각 언어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판결문 스캔본을 받았다고 합시다. 20년 전 판결문이라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고 글자가 희미합니다. 이것을 AI OCR에 넣으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텍스트는 검색이 가능하고, 복사해서 의견서에 인용할 수 있고, 다른 판결문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거래처에서 팩스로 보내온 주문서(아직도 팩스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AI에게 보내면, 주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엑셀 표로 정리해줍니다.

여행 중에도 유용합니다. 외국 식당에서 현지어로 된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AI에게 보내면, 글자를 인식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읽어서 정리해줘. 표 형식이 있으면 표로 유지하고, 손글씨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인식해줘. 읽기 어려운 부분은 [불분명]으로 표시해줘."

"이 명함 사진에서 이름,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추출해서 연락처 형식으로 정리해줘."

## 3. 손글씨 메모 — AI에게 읽히는 아날로그

이 내용은 손으로 쓴 개인 메모를 보여줍니다.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된 여행 메모 또는 일상 기록으로 보이며, 이것은 **AI OCR** 활용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손글씨 메모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설명한 **AI OCR** 기능의 실전 활용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손글씨도 **AI**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는 손글씨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회의 중에 급하게 적은 메모, 강의 노트, 진료 기록, 어르신들의 편지, 오래된 일기장 등이 모두 손글씨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그 자체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AI**에게 이 손글씨 사진을 보여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I**가 글씨를 읽고, 텍스트로 변환하고, 심지어 내용을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치 손글씨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AI**에게 주면, 전체 내용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무엇인가"까지 분석해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의사가 환자 차트에 손으로 적은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AI**에게 보내면 전자 의무 기록으로 변환할 수 있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급하게 적은 메모를 **AI**로 정리하면 깔끔한 회의록이 됩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 손글씨 메모 사진을 읽어서 텍스트로 변환해줘. 읽기 어려운 글자는 **[?]**로 표시하고,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해줘. 그리고 핵심 내용을 **3**줄로 요약해줘."

"이 손글씨 편지를 읽고, 정서적 톤(기쁨, 슬픔, 걱정 등)을 분석해줘."

## 4. AI와 함께한 13개국 배낭여행 — 실전 체험기

이 내용은 실제로 **AI**를 활용하며 여행한 생생한 체험기입니다. 형광펜으로 강조된 여러 문단이 보이며, **AI**를 여행의 동반자로 활용한 구체적인 경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13**개국 단독 배낭여행 중에 **ChatGPT**와 **Claude**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AI**의 실전 능력을 직접 체험한 내용입니다.

이 체험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AI**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이론"이나 "가능성"에 머무릅니다. "**AI**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해본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낭여행은 **AI** 활용의 최고의 시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숙소 예약이 취소되고, 기차를 놓치고, 메뉴판을 읽을 수 없고, 길을 잃고, 현지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실시간 문제 해결에 **AI**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합시다. 현지 약국에 가서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됩니다. 이때 **AI**에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 터키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영어와 터키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줘.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먹는 정로환 같은 약의 현지 이름도 알려줘"라고 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내면 각 요리의 설명과 함께 "이 중에서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까지 추천해줍니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법, 관광지 입장료와 운영시간, 현지 팁 문화 등 여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여행 경험이 결국 **AI** 전문가로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AI**를 써봤다"가 아니라, 극한의 실전 상황에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체험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AI**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론서 **100**권을 읽는 것보다 **13**개국 여행에서 **AI**를 직접 써본 경험이 더 값진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나는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어. 내일 신트라(**Sintra**)에 당일치기 여행을 가려고 해. 리스본에서 신트라까지 기차 시간표, 신트라에서 반나절 코스 추천, 점심 맛집, 그리고 저녁까지 리스본에 돌아오는 일정을 짜줘."

"이 식당 메뉴판 사진을 보고 각 요리를 한국어로 설명해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해산물이 들어간 메뉴는 따로 표시해줘."

## 5. 유럽 건축물 앞에서 — AI 이미지 분석 실습

유럽의 화려한 건축물(오페라 하우스 또는 극장으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촬영한 여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AI** 이미지 분석의 실전 연습 대상입니다. **AI**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건물이 어디인지, 건축 양식은 무엇인지, 언제 지어졌는지"를 물어보면 **AI**가 시각적 단서(건축 양식, 조각, 기둥 형태 등)를 분석하여 건물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장소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 현장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사진 속 건물의 이름, 위치, 건축 양식, 역사적 배경을 알려줘."

## 6. 거리 풍경 사진 — AI 이미지 인식과 상황 분석

해외 거리에서 촬영한 일상 풍경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AI**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다양한 분석을 요청하는 실습 대상입니다. **AI**는 사진 속 거리의 분위기, 간판, 교통 표지판, 건축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 장소를 추정하고, 현지 문화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속 텍스트(간판, 표지판 등)를 **OCR**로 읽어 번역하는 연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찍힌 것인지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해줘."

## 7. 외국어 메뉴판 — AI 번역의 실전

해외 식당의 메뉴판 사진입니다. 현지 언어로 된 메뉴판은 외국 여행자에게 가장 흔한 언어 장벽 중 하나입니다. **AI**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각 메뉴의 이름, 가격, 재료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해줍니다. 단순 번역을 넘어 "이 요리는 어떤 맛인지", "한국의 어떤 음식과 비슷한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어, **AI**가 현지 식당에서의 개인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이 메뉴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각 요리의 특징과 추천 메뉴를 알려줘."

# 제4부 인공지능 활용 TOP 10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는 크게 **6**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ASK-ANSWER,** 즉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의견 요청**,** 자문 등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AI**가 즉시 답해줍니다**.** "이 계약 조항이 민법 몇 조에 해당해**?**"처럼 전문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둘째는 전 세계 모든 언어 상호간 번역과 통역입니다**.** 한국어를 스와힐리어로**,** 아랍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일이 몇 초면 끝납니다**.**

셋째는 글쓰기로**,** 보고서**,** 이메일**,** 칼럼**,** 소설까지 모든 종류의 글을 **AI**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모든 지식에 대한 학습도구 역할입니다**. AI**가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수준에 맞춰 설명해줍니다**.**

다섯째는 정보요약으로**, 100**페이지 보고서를 핵심 **3**줄로 압축해줍니다**.** 여섯째는 창작 아이디어 제공으로**,** 사업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컨셉까지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됩니다**.**

이 내용은 **AI**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여행 일정 설계**,** 메모 및 기록 설계**,** 어제 있었던 일을 미래 서술 방식으로 바꾸기**,** 미래에 있을 자기 자신의 기여 방법 탐색**,** 하루 만에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방법**,** 이미지 관련 작업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AI 활용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같은 대단한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AI가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는 곳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행 일정 설계부터 보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듭니다. 항공편 시간 확인, 숙소 위치와 관광지 동선 최적화, 식당 예약, 현지 교통편 파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AI에게 조건을 알려주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최적의 일정을 만들어 줍니다.

"3박 4일 오사카 여행 계획을 짜줘. 60대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하루 걷는 거리가 5km를 넘지 않게 해줘. 맛집은 현지인이 많이 가는 곳으로 추천하고, 각 장소 사이 이동 시간도 포함해줘."

어제 있었던 일을 미래 서술 방식으로 바꾸기는 흥미로운 활용법입니다. 이것은 일기나 회고록을 쓸 때, 또는 자기소개서나 에세이를 쓸 때 시점을 전환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긴장해서 실수했다"는 과거 경험을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할 것이다"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재구성(positive reframing)" 기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있었던 일이야. 이것을 미래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다시 써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톤으로 부탁해. [어제의 경험 입력]"

하루 만에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방법은 AI 시대의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AI에게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 데이터 정리 프로그램,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 등을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새 파일로 저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조건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야."

이미지 관련 작업은 AI의 시각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편집, 이미지 생성, 사진 속 텍스트 인식, 이미지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블로그에 올릴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거나, 제품 사진의 배경을 바꾸거나,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일을 AI가 해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분석한 2025년 생성형 AI 활용 빈도 TOP 10은 이 6대 영역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위는 상담 및 대화 파트너로, 정서적 지원

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상 친구 역할입니다. 외로운 현대인이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위는 일상 생활 관리로, 일정 관리, 할 일 목록, 계획 수립 등 개인 비서 역할입니다. **3**위는 삶의 목적 찾기라는 다소 철학적인 영역인데, **AI**가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4**위 학습 능력 향상은 맞춤형 교육과 즉각적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이고, **5**위 전문가용 코드 생성은 프로그래밍 자동화입니다. **6**위 아이디어 생성, **7**위 재미와 유희, **8**위 코드 개선, **9**위 창의성 발휘, **10**위 건강한 생활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1**위가 "정보 검색"이나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정서적 대화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AI**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외로움 해소와 감정적 지지라는 것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정서적 필요까지 충족시키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5부 녹음 녹취와 전사문을 활용

## 1. 녹음에서 전사문, 전사문 그리고 AI를 활용한 가공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회의, 강의, 인터뷰, 상담, 전화 통화 등 중요한 내용이 말로 오가지만, 대부분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사라집니다.

이 내용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3**단계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녹음, 전사, **AI** 가공이라는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녹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기기를 활용해 일상의 중요한 대화를 녹음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기본 음성메모 앱만으로도 충분하고,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손목에서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아이폰과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활용하면 통화 녹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핵심은 "일단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강의를 들을 때 녹음해두고, 중요한 전화 통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사문 작성입니다. 이제 클로바노트나 다글로 같은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 전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폰의 경우, **Galaxy AI**의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기능이 음성 녹음 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변환, 번역, 요약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고 변환할 녹음 파일을 선택한 뒤,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고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는 기존 녹음본도 시간 제한 없이 텍스트 변환이 가능하며, 최대 **4**명까지 발화자를 구분해서 변환해 줍니다.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UI 7**에서는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고 요약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발화자와 수화자를 구분하여 문자메시지처럼 읽을 수 있고, 긴 통화의 경우 **AI**가 핵심

포인트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줍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를 지원하며, 텍스트 변환 기능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iOS 18.1**부터 메모 앱에 오디오 전사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메모 앱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면 말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사됩니다. 전사문에서 특정 텍스트를 탭하면 해당 지점부터 오디오가 재생되고, 전사문 내 검색도 가능합니다.

**iPhone 12** 이후 모델에서 제공되며,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통화 녹음도 가능해졌습니다. 통화 중 화면 상단의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된 내용은 메모 앱에 저장되어 전사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시작 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음성 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Apple Intelligence**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녹음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별도 앱 없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폰 자체만으로 녹음부터 전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전사문은 여전히 "초벌 원고"와 같습니다. 음성 인식의 한계로 오탈자가 있고, "음...", "그러니까..." 같은 군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읽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AI** 가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AI**를 통한 가공입니다. 초벌 전사문을 **ChatGPT**나 **Claude**에게 넣고 정제를 요청합니다. **AI**는 군말을 제거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고, 화자를 구분하고, 주제별로 분류합니다. 더 나아가 핵심 내용 요약, 액션 아이템 추출, 회의록 형식 변환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내용은 **100%** 보존하면서도 읽기 쉬운 문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위력은 실무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변호사라면 의뢰인 상담 내용을 녹음한 뒤 **AI**로 정리하면 정확한 사건 기록이 되고, 기자라면 인터뷰 녹음을 **AI**로 정리하면 기사 초안이 되고, 학생이라면 강의 녹음을 **AI**로 정리하면 완벽한 강의 노트가 됩니다. 마지막 **32**번이 보여주는 **01**(녹음 및 전사), **02**(정리 및 요약, 핵심 메시지와 퀴즈 작성), **03**(다양한 포맷으로 변환)의 **3**단계 프로세스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지식으로 축적하는 **AI** 시대의 가장 실용적인 습관입니다.

## 2. 녹음 전사문의 AI 재가공을 통한 법률 서류 작성 실무 활용

가. 전사문 기반 법률 문서 작성의 워크플로우

변호사 실무에서 녹음 자료는 사건의 핵심을 담고 있는 1차 증거이자 사실관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녹음 원본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 서면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발화자 간 대화가 뒤엉켜 있고, 핵심 쟁점과 무관한 발언이 혼재하며,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전사문 전체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과정을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녹음파일을 **STT(Speech-to-Text)** 기술로 전사한다. 둘째, **AI**가 1차 정리를 수행하여 화자를 구분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한다. 셋째, 변호사가 **AI** 정리본을 검토·보정하여 법적 정확성을 확보한다. 넷째, 보정된 내용을 목적별로 활용하여 서면 작성, 증거 분석, 전략 수립 등에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원본 녹음파일, 전사문, **AI** 정리본을 함께 보관하여 증거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분석과 판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준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AI**가 정리한 결과물을 법적 관점에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법률 서류 작성에 즉시 착수할 수 있다.

나. 소송 서면 작성 활용

전사문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법률 서면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를 민사 소송 서면, 형사 소송 서면, 증거 관련 서면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민사 소송 서면

소장 작성에 있어 전사문은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I**에게 전사문을 제공하면서 "첨부 전사문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 의사를 표시한 발언을 모두 추출해라"와 같은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AI**는 해당 발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발언의 법적 의미(자백, 채무승인, 변제약정 등)를 분석한

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채무 인정" 항목에 들어갈 준비서면 본문 초안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

준비서면의 경우, 상대방 발언 중 자백이나 인정 부분을 쟁점별로 매핑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전사문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대목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하면, 변호사는 이를 준비서면의 각 쟁점에 배치하여 논리적 구조를 완성한다.

석명준비명령 답변서 작성 시에도 녹취 내용은 사실관계 소명의 근거가 된다. 법원이 요구하는 특정 사실에 대해 녹취록의 어느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AI**가 정리해 주면, 답변서 작성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2)** 형사 소송 서면

고소장과 고발장 작성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전사문 내 발언을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사기 피해 사건에서 **AI**에게 "전사문에서 사기죄 구성요건별 해당 발언을 분류해라"고 요청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발언, 착오 유발에 해당하는 발언, 처분행위와 관련된 송금 요청이나 재촉 발언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는 이를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에게 증거가치가 높은 핵심 발언 **3**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면, 고소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발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후진술서 초안 작성에서는 피고인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맥락을 추출하는 데 전사문이 활용된다.

## 3. 증거 관련 서면

증거설명서 작성 시, 각 녹취 부분의 입증취지를 사실관계와 연결하는 작업을 **AI**가 보조한다. 증인신문사항은 전사문 내 모순점을 기반으로 질문을 설계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 질문은 상대측 증인의 기존 발언과 불일치 부분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료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의뢰인, 증인, 상대방 각각에 대해 물어볼 사항과 신문사항을 **AI**에게 작성 요청하면, 변호사는 이를 검토·수정하여 실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증거 분석 및 사건 전략 수립

전사문의 활용은 단순한 서면 작성을 넘어 사건 전략 수립의 핵심 도구로 확장된다.

**1)** 사실관계 정리

**AI**는 전사문에서 사건 타임라인**(Chronology)**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핵심 인물 관계도를 추출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금전 수수, 약속, 협박 등 법적 의미 있는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에서 "**3**개 전사문을 통합하여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해라(날짜, 사건, 핵심발언 형식)"라고 요청하면, 계약 협의 단계부터 계약 체결, 분쟁 발생까지의 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2)** 진술 일관성 분석

동일 당사자의 복수 발언 간 모순점을 발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주장 변화를 추적하며, 상대방 서면 주장과 녹취 내용 간 불일치를 대조하는 작업은 소송 전략의 핵심이다. **AI**에게 "피고의 답변서 주장 **3**가지와 모순되는 발언을 각각 찾아라"고 요청하면, 예컨대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와 **2024**년 **1**월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녹취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발언이 존재하는 경우를 **AI**가 자동으로 포착하고, 각 모순점에 대한 분석**(**왜 모순인지 설명**)**까지 제공한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반대신문 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3**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AI**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전략적 활용

상대방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할 때, 녹취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화해나 합의 진행과 소송 진행 판단 시에는 유불리 분석이 필요한데, **AI**가 "우리 측(매수인)에게 유리한 발언과 불리한 발언을 구분하여 **SWOT** 분석을 해라"와 같은 요청에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설계하는 데도 전사문이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 4. 계약 및 합의 관련 활용

가. 구두 합의 문서화

실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전사문에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추출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계약 조건에 관한 구두 협의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의뢰인(갑)과 거래처(을) 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전사문을 **AI**에게 제공하면서, 첨부 전사문에서 계약의 주요 요소(용역 범위 및 내용, 대금 액수 및 지급 조건, 납품 기한, 하자보수 책임,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추출하고,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며, 전사문에서 명확히 합의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분쟁 해결

계약 해석 분쟁 시 체결 당시 대화 내용으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이다. **AI**는 전사문에서 계약의 의미에 관한 당사자의 발언을 추출하여 의사해석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최고장이나 통지서 발송 전에 상대방 발언을 정리하여 통지 내용의 정확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 5. 의뢰인 소통 및 사건 관리

가. 상담 기록 정리

의뢰인 상담 녹음을 전사한 후 **AI**가 이를 사실관계, 요청사항, 우려사항으로 분리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후속 상담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 사건 진행 관리

상대방과의 협상 통화 기록을 정리하고, 사건 진행 과정별 구두 합의사항의 이력을 관리하는 데도 **AI**가 활용된다. 예컨대 건설 하자보수 분쟁에서 상대방과 **3**차례 영상 협상을 진행한 경우, **AI**에게 "**3**개 전사문을 분석하여 협상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요청하면서, 각 협상일자별 주요 논의 내용, 상대방 입장 변화 추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 사항, 향후 협상 전략에 대한 제안사항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최소화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6. 결론

녹음 전사문의 **AI** 재가공은 변호사 실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단일한 녹음 자료로부터 소장, 고소장, 내용증명, 답변서, 가처분신청서는 물론이고,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 질문, 협상 보고서, 계약서 초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서류를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핵심은 **AI**가 전사문 속 방대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류·추출·재구성해 줌으로써 변호사가 법적 판단과 전략 수립이라는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AI**는 변호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AI**는 변호사의 분석 능력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제6부 변호사 사무실을 위한 LLM 프로젝트 활용 완전 가이드

## 1. LLM 프로젝트 기능이란 무엇인가

가. 왜 프로젝트 기능이 필요한가

일반적인 챗봇 대화창은 매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배경지식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임대차 분쟁이고, 원고는 임대인이며, 피고가 2년간 차임을 연체했고..." 이런 설명을 매 대화마다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프로젝트(Claude), GPTs(ChatGPT), Gems(Gemini), 노트북(NotebookL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학습된 전용 방을 만드는 기능이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지식 저장소(Knowledge): 관련 법령, 서면 템플릿, 사건 자료(PDF, 텍스트)를 미리 업로드하면 매번 대화할 때마다 다시 올릴 필요가 없다. AI가 이 자료들을 항상 참조한 상태에서 답변한다.

(2) 고정 지침(Instruction): "너는 10년 차 민사전문 변호사야. 답변은 항상 '주장-입증-결론'의 구조로 해줘"와 같은 규칙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매번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진다.

(3) 연속성(Continuity): 한 프로젝트 안에서 대화하면 AI가 이전에 업로드된 모든 문서의 맥락을 기억한 상태에서 답변한다. 사건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는다.

나. 변호사 업무에서의 핵심 원칙: 사건별 캐비넷

변호사 사무실에서 **LLM**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사건/자문 별로 별도 캐비넷(프로젝트)을 만들어 작업하는 것이다. 물리적 사무실에서 사건별로 파일 폴더를 관리하듯, 디지털 **AI** 공간에서도 사건별로 독립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자료의 혼선이 없고 일관된 맥락 위에서 작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민사**-**임대차분쟁**-**홍길동" 프로젝트, "**2026-**자문**-M&A-ABC**기업"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들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대화를 그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한다.

## 2. 도구별 프로젝트 생성 및 자료 업로드 방법

가. **Claude**(앤스로픽) — '**Projects**'

**Claude**의 프로젝트는 논리적인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 서면 초안 작성에 가장 적합하다.

**(1)** 생성 방법**:** 메인 화면 좌측 하단의 '**Projects**'를 클릭한 후 '**Create Project**'를 선택한다. 프로젝트 이름은 "사건번호-사건유형-의뢰인명" 형식으로 짓는 것이 좋다.

**(2) Set Instructions:** 프로젝트 설정에서 "민사 소송 사건 전문가"와 같은 역할과 답변 구조를 지정한다. 예시**:** "너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보조 **AI**야. 모든 답변은 ①법적 쟁점 정리, ②관련 판례 분석, ③전략적 의견 순서로 작성해줘.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답변하되, 법률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해."

**(3) Add Content:** 우측 상단의 '**Add Content**'를 통해 사건 기록**(PDF** 등**)**을 업로드한다. 최대 **200MB**까지 가능하며**,** 텍스트 기반 **PDF**가 가장 효과적이다.

**(4)** 활용 팁**: Claude**는 긴 문서의 논리적 분석과 서면 초안 작성에 강점이 있다. 특히 준비서면의 주장**-**반박 구조 작성**,**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 분석에 탁월하다.

나. **ChatGPT**(오픈**AI**) — '**GPTs**' 또는 '**Projects**'

범용적인 리서치와 다양한 플러그인 연동에 강점이 있다.

**(1)** 만들기**: 'Explore GPTs'**에서 **'Create'**를 클릭한다**.** 또는 최근 추가된 **Projects**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2) Configure: 'Knowledge'** 섹션에 관련 자료를 업로드한다**. Instructions**에 역할과 답변 방식을 설정한다**.**

**(3) Capabilities: 'Code Interpreter'**를 활성화하면 증거 분석**(**금융거래 내역 등**)**이 가능해진다**. 'Web Browsing'**을 켜면 최신 판례 검색도 할 수 있다**.**

**(4)** 활용 팁**: ChatGPT**는 **DALL-E** 이미지 생성과 코드 분석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사고 현장 재구성 도식 제작이나 금융거래 데이터 분석에 유리하다**.**

다**. Gemini**(구글) **— 'Gems'**

구글 생태계**(Gmail, Drive, Docs)**와의 연동이 강점이다**.**

**(1)** 생성 방법**: Gemini** 메인 화면에서 **'Gem manager'**를 클릭하고 **'New Gem'**을 선택한다**.**

**(2)** 설정**:** 이름**,** 역할 지침**(Custom Instructions)**을 입력한다**.** 예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해줘**."**

**(3)** 자료 연동**: Google Drive**에 저장된 사건 자료를 직접 참조할 수 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미 사용 중인 법무법인에 특히 편리하다**.**

**(4)** 활용 팁**: Gemini**는 구글 검색 기반의 최신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고**,** 멀티모달(이미지**,** 문서) 처리가 강력하다**.** 증거 사진 분석이나 계약서 이미지 텍스트 추출에 유용하다**.**

라**. NotebookLM**(구글) **—** '사건별 디지털 캐비넷'

가장 많은 자료(최대 **50**개 파일**,** 총 **500,000**단어)를 올릴 수 있어 변호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지식 기반 도구다**.**

**(1)** 생성 방법**: NotebookL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새 노트북'을 생성한다**.**

**(2)** 소스 추가**:** 좌측의 '소스' 버튼을 눌러 **PDF,** 구글 드라이브 문서**,** 복사한 텍스트 등을 업로드한다**.** 웹사이트 **URL**도 소스로 추가할 수 있다**.**

**(3)** 가이드 활용**:** 업로드 즉시 **AI**가 전체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 요약'이나 '타임라인' 등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4)** 활용 팁**: NotebookLM**은 자료 기반 답변의 정확도가 가장 높다**.** "이 근거가 어느 문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므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에 최적이다**.** 또한 오디오 개요**(Audio Overview)** 기능으로 사건 브리핑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

## 3.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구체적인 활용법

가. 소송 사건의 프로젝트 세팅 워크플로우

**(1)** 프로젝트 생성: 사건을 수임하면 즉시 **4**개 도구 모두에 동일한 사건명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각 도구의 강점이 다르므로 병행 활용이 이상적이다.

**(2)** 자료 업로드: 소장(또는 답변서), 증거 자료, 관련 법령, 참고 판례를 모든 프로젝트에 업로드한다. 이때 자료는 가능한 한 텍스트 기반 **PDF**로 통일한다. 스캔 이미지 **PDF**는 반드시 **OCR**(텍스트 인식) 처리를 거친 상태여야 한다.

**(3)** 고정 지침 설정: 각 프로젝트에 사건 유형에 맞는 역할과 답변 구조를 지정한다. 예시: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이다. 원고(임차인) 측 대리인의 관점에서 분석해줘. 관련 법령: 민법 제**618**조~제**6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4)** 도구별 역할 분담: **NotebookLM**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출처 추적, 타임라인 정리에 활용한다. **Claude**는 준비서면 초안 작성과 법률 논증 구조화, 상대방 주장 반박문 작성에 활용한다. **ChatGPT**는 유사 판례 리서치와 금융거래 데이터 분석, 도표·도식 생성에 활용한다. **Gemini**는 최신 판례 검색과 증거 사진 분석, 구글 드라이브 연동 문서 관리에 활용한다.

나. 프로젝트를 만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1)** 각종 서면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내용증명 등 다양한 법률 서면의 초안을 **AI**에게 맡길 수 있다. 핵심은 "초안"이라는 점이다. **AI**가 작성한 서면은 반드시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사건 자료가 미리 올라가 있으므로, "이 사

건의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해줘. 쟁점은 ①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②보증금 반환 의무의 범위야"라고 지시하면 맥락에 맞는 초안이 나온다.

**(2)** 각종 분석서 작성**:** 증거분석서(각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성 분석), 상대방 주장 분석(논리적 허점 식별), 판례 분석(유사 판례의 사실관계 대비 분석), 법령 해석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업로드하고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분석해줘"라고 요청하면, 논리적 모순이나 증거 부족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준다.

**(3)** 변호사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 질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특정 법률 해석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 프로젝트 안에서 질문하면 **AI**가 업로드된 사건 자료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하므로, 일반적인 검색보다 훨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상계 항변이 가능한가**?**",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 같은 실무적 질문에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4)**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자료 생성**:** 사건 경과 보고서, 의뢰인 설명용 요약문, 법률 의견서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A4 1**장으로 요약해줘"라고 요청하면, 법률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해준다.

다. 대량 자료(증거)의 가공 및 업로드 전략

**(1)** 증거 자료의 '원파일**(One-File)**'화**:** 낱개의 내용증명, 이메일, **PDF**들을 하나의 **PDF**로 병합한다. 파일 개수 제한(보통 **10~20**개)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스캔 **PDF**는 반드시 **OCR** 처리를 하여 텍스트가 인식되는 상태여야 **LLM**이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2)** 타임라인 프롬프트와 자료 연결(멀티모달 전략)**:** 사진과 같은 비텍스트 증거는 먼저 설명문을 작성한다. 예**:** "증제**1**호증**: 2024.01.01.** 현장 사진 **—** 건물 외벽 균열 상태**.**" 이런 설명을 별도 문서에 정리한 후 **PDF**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AI**가 증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다. 녹취문의 경우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LLM**에게 "핵심 발언 위주로 타임스탬프를 붙여 요약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요약문을 프로젝트 지식으로 활용한다.

**(3) NotebookLM + Claude/Gemini** 협업 프로세스**:** 용량 제한이 거의 없는 **NotebookLM**을 "데이터 창고"로 쓰고, 정교한 서면 작성에는 **Claude**나 **ChatGPT**를 쓰는 방식이다. 먼저 **NotebookLM**에 수백 페이지의 사건 기록 전체를 업로드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줘", "피고의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증거 번호와 함께 리스트업 해줘"라고 요청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NotebookLM**이 정리해준 핵심 요약 텍스트를 복사하여 **Claude** 프로젝트에 붙여넣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요청한다. 이 **3**단계 워크플로우를 통해 각 도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4. 자문 업무에서의 활용

가. 법률 자문 프로젝트 세팅

소송과 달리 자문 업무는 상대방 서면이 없고, 의뢰인이 제공한 계약서나 규정이 중심 자료다. 프로젝트 지침 예시: "이 프로젝트는 **ABC**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자문이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을 기준으로 분석해줘."

나. 구체적 활용 시나리오

**(1)** 계약서 검토: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우리 측(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식별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해줘"라고 요청한다. **AI**가 불리한 조항, 모호한 표현, 누락된 보호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준다.

**(2)** 규제 준수 체크리스트: 특정 산업의 규제 요건을 업로드하고 의뢰인의 현재 운영 상태를 설명하면,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해주는 체크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3)** 법률 의견서 작성: 복잡한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할 때, 관련 법령과 판례를 프로젝트에 넣어두면 근거 있는 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M&A** 실사**(Due Diligence):** 대량의 계약서와 재무제표를 업로드하고, 리스크 요인을 자동으로 식별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계약서에서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 것을 모두 찾아줘" 같은 구체적 검색이 가능하다.

## 5. 주의사항 및 윤리적 고려

가. AI 답변의 한계 인식

LLM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법령 조문을 부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다. AI가 제시한 판례 번호와 법령 조문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 확인해야 한다.

나. 비밀유지 의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6조)를 고려하여, 민감한 의뢰인 정보를 외부 AI에 업로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정보를 비식별화(가명 처리)한 후 업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유료 플랜(데이터 학습 미사용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의 몫

AI는 보조 도구일 뿐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가 내려야 한다. AI가 제시한 분석과 초안은 출발점이지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경험과 직관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 제7부 변호사 계약 자문 업무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법

## 1. 계약서 생성 및 초안 작성

가. 계약서 초안 신속 생성

변호사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거래 유형, 당사자 정보, 핵심 조건(대금, 기간, 의무 사항 등)을 AI에 입력하면 해당 거래에 적합한 계약서 초안을 수 분 내에 생성할 수 있다. 매매계약, 용역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다양한 유형에 대응하며, 업종별 특수 조항까지 반영할 수 있다. 변호사가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검토와 수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프롬프트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발주자는 A주식회사, 수급자는 B주식회사이며, 계약금액은 5억원, 개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해 주세요."

나. 비밀유지계약서(NDA) 맞춤 생성

거래 목적(투자 검토, 기술 제휴, M&A 실사 등)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최적화된 NDA를 생성할 수 있다. 일방적 NDA와 상호적 NDA를 구분하고,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유효기간, 예외 사유, 반환 및 폐기 의무, 위반 시 구제 수단 등을 거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준거법과 관할, 수출통제 규정 준수 조항까지 포함하여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 2. 위험 탐지 및 리스크 분석

가. 특수 조항(**RED FLAG**) 자동 탐지

계약서 전문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불리한 조항, 모호한 손해배상 채임, 일방적 해지권, 경업금지 기간의 부당한 설정, 갱신 거절의 자유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경고한다. 각 특수 조항에 대하여 심각도를 **3**단계 등급(상, 중, 하)으로 제시하고 해당 조항이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와 함께 설명한다. 대량 계약서에도 빠르게 적용되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프롬프트 예시**]**

"첨부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우리 측(을)에게 불리한 조항을 모두 식별해 주세요. 각 조항에 대해 ①위험도(상/중/하), ②불리한 이유, ③수정 권고안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나. 누락된 필수 조항 식별 및 추가

거래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불가항력, 분쟁해결, 준거법, 비밀유지, 손해배상 한도 등)이 누락되었는지 점검한다. 누락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의 부재가 어떤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조항 문안까지 제안한다. 특히 국내법 및 관련 규정(전자상거래법, 대리점법 등)의 요구사항도 함께 점검하여 법령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다. 업무위탁계약서 리스크 분석

업무위탁(아웃소싱) 계약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위탁 범위의 모호성, 재위탁 허용 여부, 하위 구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성과 기준**(SLA)**의 명확성, 위탁자의 감독 권한,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

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별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라. 계약서 조항별 해석 및 리스크 평가

계약서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분석하여 해당 조항의 법적 의미, 실질적 영향,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단순 해석을 넘어 "이 조항이 분쟁 시 어떻게 작용하느냐", "상대방이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실전적 리스크를 평가한다. 경영진이나 비법률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인다.

## 3. 수정 및 협상 지원

가. 상대방 유리 조항 수정안(**Redlining**) 제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수정안을 문안과 함께 제시한다. 원문과 수정안을 대조하여 변경 사항과 변경 이유를 명시하므로, 상대방에게 수정 요청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문 계약서에서 미묘한 표현 차이(**Shall vs. May, Reasonable Efforts vs. Best Efforts** 등)가 가져오는 법적 효과 차이를 반영한 정밀한 수정안을 제공한다.

**[**프롬프트 예시**]**

"첨부한 계약서에서 상대방(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찾아 주세요. 각 조항에 대해 ①원문, ②문제점, ③우리 측에 유리한 수정안을 제시해 주세요. 수정안은 협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문안으로 작성해 주세요."

나. 모범례 기반 일관된 계약 검토

회사의 계약 검토 기준(플레이북)을 사전에 설정하고, 모든 계약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손해배상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준거법은 반드시 한국법으로 한다", "중재지는 서울로 한다" 등의 사내 기준을 등록하면, 검토 대상 계약서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동으로 판별한다. 법무팀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토 품질의 편차를 최소화한다.

## 4. 특수 조항 심층 검토

가. 손해배상·면책 조항 적정성 검토

손해배상 조항의 세부 내역(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배상 한도(CAP), 면책 사유, 배상 청구 기간 등)이 거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지 분석한다. 특히 무과실 책임, 연대책임 여부, 면책 조항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경우를 식별하고, 업계 표준과 비교하여 수정안을 제시한다. 약정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의 유효성과 위약벌(Penalty)과의 구별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나. 분쟁해결 조항(중재·관할) 최적화 자문

소송과 중재 중 어느 것이 해당 거래에 적합한지,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최적의 중재기관(ICC, SIAC, KCAB, LCIA 등)과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한다. 상대방의 국적과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실질적으로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관할을 추천하고, 임시적 보전처분(Interim Measures)의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다. 계약 갱신·해지 조건 분석

계약 갱신 조항의 유형(Opt-out 기반 또는 자동 갱신 여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모, 해지 통지 기간의 적정성, 해지 후 잔존 의무 등을 분석한다. 특히 계속적 계약(SaaS, 유지보수, 프랜차이즈 등)에서 해지 조건의 적절성을 심층 점검한다.

라. 라이선스·지적재산권 조항 검토

라이선스의 범위(독점/비독점, 지역, 기간, 용도), 2차 저작물 생성권의 귀속, 소스코드 에스크로,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시 면책(IP Indemnification), 특허 등록 전 라이선스 효력 범위 등을 검토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특허 등록 여부에 따른 IP 귀속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 5. 비교 분석 및 정보 정리

가. 영문 계약서 번역 및 법률용어 검증

영문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 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법률용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상 영어와 법률 영어의 의미 차이(예: **Consideration**은 "고려"가 아닌 "약인", **Indemnify**는 "보상"이 아닌 "면책·보전", 약관법상의 면책과 계약법상의 면책 구별)를 정확히 반영한다. 단순 번역을 넘어 양 법체계 간 개념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서와 함께 설명을 제공한다.

[프롬프트 예시]

"첨부한 영문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법률용어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영문 원문의 법적 의미와 한국어 번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역자 주]를 달아 설명해 주세요."

나. 표준계약서와 검토 대상 계약서 비교 분석

업계 표준계약서(**FIDIC, SAJ Form, ISDA Master Agreement,** 공정위 표준약관 등)를 기준으로 검토 대상 계약서의 조항별 차이를 분석한다. 표준보다 불리한 조항, 표준에는 있으나 검토 대상 계약서에는 누락된 조항 등을 명확히 식별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표준에서 어느 정도로 이탈한 부분을 파악하고, 협상에서 왜 표준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논리적·근거 있게 주장할 수 있다.

다. 계약서 요약 테이블 자동 생성

장문의 계약서에서 핵심 정보(당사자, 계약 목적, 대금, 지급 조건, 주요 의무, 이행 기간, 해지 조건, 손해배상 한도, 준거법, 분쟁해결 방법 등)를 추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테이블을 자동 생성한다. 복수의 계약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법무팀이나 경영진에게 특히 유용하며, 계약 포트폴리오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만기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프롬프트 예시**]**

"첨부한 **3**건의 계약서를 분석하여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계약 당사자, 계약 유형, 계약금액, 계약 기간, 자동갱신 여부, 해지 조건, 손해배상 한도, 준거법, 분쟁해결 방법, 비밀유지 기간."

## 6. 실무 활용 시 유의사항

**AI**가 생성한 계약서 초안이나 검토 의견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AI**는 일반적인 법리와 표준적인 계약 관행에 기반하여 결과물을 생성하지만, 개별 거래의 고유한 사정, 당사자 간 협상 경과, 업계 특수 관행 등은 변호사만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AI**는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변호사가 보다 높은 부가가치의 법률 판단과 전략적 자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 제8부 AI가 생성물에 대한 팩트 체크

변호사 업무에서 인공지능은 계약서 검토, 판례 조사, 법률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보조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거나 법률 문서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가 **AI**를 활용할 때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팩트 체크다.

## 1. 팩트 체크 전용 도구의 활용

**AI**가 생성한 법률 의견이나 판례 인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는 **Felo AI**나 **Perplexity AI** 같은 검색 기반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들 도구는 실시간 웹 검색을 기반으로 출처를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ChatGPT**나 **Claude**가 생성한 답변의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예컨대 **AI**가 특정 판례를 인용했다면, **Perplexity**에서 해당 판례 번호와 판시 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하나의 오류가 소송 전략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수의 경로로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2. 의심스러운 부분 선별 검증

**AI**가 답변한 내용 전체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효율적인 팩트 체크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선별하여 집중 검증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이 있다면 직관적으로 "이 부분이 맞나?"라는 감이 올 것이고, 그 부분을 발췌하여 별도로 팩트 체크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AI**가 인용한 법 조문의 조항 번호, 판례의 실존 여부와 판시 내용의 정확성, 시행일자, 개정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특히 **AI**는 실존하지 않는 판례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할루시네이션과 학습 데이터 오류

현재 최신 **AI** 모델들도 약 **2%** 내외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서술하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AI**의 학습 데이터 자체에 인간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AI**가 틀린 답을 내놓는 원인이 모델의 생성 오류뿐 아니라 학습 자료의 원천적 부정확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법률 분야에서 **2%**의 오류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100**건의 법률 자문 중 **2**건에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4. AI 맹신의 경계와 주체성 유지

**AI**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AI**의 답변을 맹신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처음에는 꼼꼼히 검증하던 변호사도 시간이 지나면 "**AI**가 틀릴 리 없다"는 무의식적 신뢰가 형성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법률 업무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변호사에게 있으며**,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판단의 중심이고 **AI**는 그 판단을 돕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 재판부의 성향**,** 상대방 대리인의 전략 등 맥락적 판단은 경험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유능한 변호사란 **AI**를 잘 활용하되 **AI**에 종속되지 않는 변호사다**.** 팩트 체크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실천이다**.**

# 제9부 LLM이 제공하는 딥 리서치 기능

최근 주요 **AI**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딥 리서치**(Deep Research)** 기능은 변호사 업무의 조사와 분석 영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딥 리서치란 **AI**가 단순히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하여 포괄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자동화된 문헌 조사와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며**,**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단편적 검색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딥 리서치가 생성하는 보고서는 평균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 요소에는 주제의 개요**,**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 다양한 출처에서 추출한 인사이트**,** 그리고 참고 출처 목록이 포함된다**.** 포맷의 다양성도 특징적인데**,** 학술 논문 스타일의 보고서부터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실무 보고서**,**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까지 목적에 맞는 형태로 산출물을 제공한다**.**

변호사 실무에서 딥 리서치의 효용은 매우 크다**.** 우선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일이 걸리던 작업을 수십 분 내에 완료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분석이 가능하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제시한다**.** 계약 분쟁에서 국내 판례뿐 아니라 해외 유사 사례**,** 학술적 논의**,** 업계 관행까지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감에 의존하던 판단을 객체적 데이터와 통계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최신 트렌드와 연구 동향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보고서에 반영한다**.**

현재 딥 리서치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AI** 서비스로는 **Google**의 **Gemini, OpenAI**의 **ChatGPT,** 그리고 **Perplexity** 등이 있다**. Gemini**는 **Deep Research**라는 이름으로 **Google** 검색 엔진과 연동된 강력한 웹 기반 조사 기능을 제공한다**. ChatGPT**는 **GPT-5** 기반의 다양한 모드**(Auto, Instant, Thinking, Pro** 등**)**를 통해 사용자가 조사의 깊이와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Pro** 모드는 리서치급 인텔리전스를 표방하며 가장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Perplexity**는 검색 특화 **AI**로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강점이며**,** 법률 조사에서 근거 자료의 추적이 용이하다**.**

변호사가 딥 리서치를 활용할 때는 질문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 계약서를 검토해 줘"와 같은 막연한 요청보다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최근 **5**년간 대법원 판례 동향과 업계 표준 계약 관행을 비교 분석해 줘"와 같이 구체적이고 범위가 명확한 질문을 던져야 양질의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딥 리서치의 결과물 역시 앞서 강조한 팩트 체크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딥 리서치는 변호사의 조사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도구로서,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변호사가 **AI**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제10부 구글 검색 URL, 유튜브 검색 URL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변호사가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색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조사하려면 관련 판례, 학설, 법령 개정 동향, 유사 사건 보도, 전문가 해설 영상 등 여러 키워드로 반복 검색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데, **AI**에게 검색 **URL** 자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이 작업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구글 검색 **URL**이란 구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브라우저 주소창에 나타나는 주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https://www.google.com/search?q=**손해배상**+**예정액**+**감액"이라는 **URL**이 생성된다. 유튜브 검색 **URL**도 마찬가지로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손해배상**+**예정액**+**감액" 형태가 된다. **AI**에게 이러한 **URL**을 한꺼번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변호사는 클릭 한 번으로 각각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실무에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분쟁을 맡았다고 가정하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책임, 지적재산권 귀속, 개발 지연 손해배상, 검수 기준 등 여러 쟁점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이때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다.

**[**프롬프트 예시 **1 -** 구글 검색 **URL**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별로 구글 검색 **URL**을 만들어 주세요**:** ①소프트웨어 하자보수 책임 판례, ②용역계약 지적재산권 귀속 대법원, ③개발 지연 손해배상 산정 기준, ④소프트웨어 검수 완료 법적 효력, ⑤용역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판례. 각 **URL**을 클릭 가능한 링크로 정리해 주세요."

**[**프롬프트 예시 **2 -** 유튜브 검색 **URL** 생성**]**

"다음 법률 주제에 대한 유튜브 검색 **URL**을 만들어 주세요**:** ①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해설**,** ②소프트웨어 분쟁 사례**,** ③용역계약 체크포인트 변호사 강의**,** ④**IT**계약 법률 리스크**.** 각각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 검색 결과로 이동하는 링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성된 **URL** 목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Grabbit** 같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이 배가된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여러 링크를 한꺼번에 선택한 뒤 새 탭으로 동시에 열 수 있고**,** **Z**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드래그로 링크 주소를 일괄 복사할 수도 있다**.** **10**개의 검색 **URL**을 한 번에 열어 각 탭에서 결과를 훑어보면**,** 개별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반복 작업에 비해 체감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 방법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조사의 체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AI**에게 **URL** 생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사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게 되고**,** 빠뜨린 검색 주제가 없는지 **AI**와 함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M&A** 거래나 국제계약 분쟁처럼 조사 범위가 넓은 사건일수록 이 방식의 효용이 커진다**.** **AI**를 단순한 답변 생성기가 아니라 조사 설계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1부 대규모 법률 자료 분석을 위한 노트북LM(NotebookLM)과 그래빗(Grabbit) 활용법

## 1 노트북LM(NotebookLM)의 정의와 변호사 업무에서의 핵심 기능

노트북**LM**은 구글이 만든 **AI** 기반 리서치 및 개인용 지식 베이스 도구입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니**(Gemini)**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반적인 챗봇**(ChatGPT,** 클로드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LM**은 **Language Model**의 약자이며, **LLM(Large Language Model)**과는 구별됩니다.

노트북**LM**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자료만을 근거로 답변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챗봇이 인터넷 전체에서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과 달리, 노트북**LM**은 사용자가 제공한 소스 문서의 범위 안에서만 답변합니다. 이는 법률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 관련된 자료만을 넣으면, **AI**가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분석하고 답변하므로 엉뚱한 정보가 섞여 들어올 위험이 없습니다.

노트북**LM**에는 한 노트에 최대 **300**개의 파일을 소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 텍스트 문서, 웹사이트 **URL,**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소스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의 자료가 혼합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외국어 자료를 소스로 넣더라도 한국어로 이해하고 정리해 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백 페이지의 준비서면, 증거 자료, 관련 판례, 법령 조문 등을 소스로 입력하여 일종의 '디지털 사건 파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관련 판례 수십 건, 학교폭력예방법 전문, 교육부 지침, 의학적 소견서 등을 모두 하나의 노트에 넣고 통합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의 근거가 된 문서의 특정 페이지를 인용(Citation)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은 몇 번째 소스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주므로, 변호사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기 용이합니다.

노트북LM의 주요 출력 기능으로는 음성 팟캐스트 생성, 요약문 작성, 비디오 생성, 체계적 정리 등이 있습니다. 문헌연구 기반의 논문, 기사, 책을 쓸 때 특히 유용하며, 노트북LM을 통해 나온 내용을 클로드(Claude)에게 문장 정리를 요청하면 더 부드럽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집니다.

## 2 크롬 브라우저 및 그래빗(Grabbit) 확장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방법

노트북**LM**에 대규모 웹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구글 크롬**(Chrome)** 브라우저와 그래빗**(Grabbit)**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합니다**.** 크롬은 구글 생태계의 핵심 브라우저로서 노트북**LM,** 제미니 등 구글 **AI** 도구들과의 연동이 가장 원활합니다**.** 이미 크롬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빗**(Grabbit)** 확장 프로그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chrome.google.com/webstore**'를 입력하여 크롬 웹 스토어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Grabit**' 또는 '**Grab it**'을 입력하여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Chrome**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 후에는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퍼즐 모양 아이콘(확장 프로그램 관리)을 클릭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서 그래빗 옆의 핀**(Pin)** 아이콘을 눌러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 상단 도구모음에 그래빗 아이콘이 항상 표시되어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빗은 웹페이지의 텍스트 콘텐츠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추출하여 복사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웹에서 수집한 자료를 노트북**LM**이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로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빗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다중 링크 일괄 처리입니다**.** 웹페이지에 여러 개의 링크가 나열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여러 링크를 한꺼번에 선택하여 새 탭으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Z**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선택한 링크들의 주소를 일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규모 자료 수집 작업에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 3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글 및 유튜브 검색용 URL 목록 생성 방법

변호사 업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일일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때 제미니(Gemini)나 클로드(Claude) 같은 AI에게 검색 결과 URL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자료 수집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URL 생성 요청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선고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의 구글 검색 결과 URL 10개를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줘." AI는 구글 검색 엔진의 검색 연산자와 규칙을 활용하여, 직접 클릭하면 해당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URL 목록을 생성해 줍니다.

유튜브 검색 URL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경매 법률 상담' 관련 최신 영상 검색 결과 URL 10개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 내의 관련 영상 URL을 추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노트북LM이 해당 영상의 스크립트(자막)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소스로 활용하므로, 영상 내용까지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 정교한 검색을 위해 AI에게 고급 검색 연산자를 활용한 URL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만 검색하도록 'site:' 연산자를 포함시키거나, 특정 기간 내의 결과만 표시하도록 날짜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I에게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사기죄 무죄 판결' 관련 최근 2년간의 판례 검색 URL을 만들어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URL** 목록은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를 복사하여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 4 그래빗을 이용한 대규모 자료 수집 및 노트북LM 소스 일괄 등록 과정

**AI**가 생성해 준 **URL** 목록을 받았다면, 이제 그래빗을 활용하여 실제 자료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노트북**LM**에 일괄 등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URL** 목록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해 준 **URL** 목록을 웹페이지에 표시하거나 문서에 붙여넣으면, 그래빗의 다중 링크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링크를 한꺼번에 새 탭으로 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원하는 링크들을 선택한 후 새 탭으로 열기를 실행합니다. 또는 **Z**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드래그로 링크 주소들을 일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래빗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열린 각 탭에서 그래빗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의 핵심 텍스트가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그래빗은 광고, 메뉴, 사이드바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문 텍스트만 깔끔하게 추출해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추출된 자료를 노트북**LM**에 일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래빗으로 추출한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파일로 저장한 후, 노트북**LM**의 '소스**(Sources)**' 창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일괄 업로드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소스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URL** 자체를 직접 소스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트북**LM**은 한 노트에 최대 **300**개의 소스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흩어져 있던 판례, 법령, 학술논문, 뉴스기사 등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등록되면 노트북**LM**은 전체 자료를 읽고 이해한 뒤,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트북LM은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이미지가 핵심인 자료는 나노바나나(Nano Banana)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로 별도 처리하고, 텍스트 부분만 노트북LM에 넣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5 구글 제미니와 노트북LM 연동 및 전문 보고서 작성 워크플로우

노트북LM에 자료를 모두 등록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구글 제미니(Gemini)와 연동하여 더 고도화된 분석과 보고서 작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Gems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제미니에서 노트북LM을 연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제미니(gemini.google.com)에 접속한 후, 설정 메뉴에서 'Google Workspace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 활성화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목록 중 노트북LM 관련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 설정이 완료되면, 제미니 대화창에서 "@NotebookLM"을 입력하여 특정 노트의 내용을 불러와 직접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업무를 위한 AI 도구별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기본자료 모음은 노트북LM으로 수행합니다. 수백 건의 판례, 법령, 증거자료를 하나의 노트에 모아 놓고 통합 분석의 기반을 만듭니다. 자료 조사와 심화 분석은 구글 제미니로 수행합니다. 노트북LM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리 분석, 판례 비교,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합니다. 최종 원고와 글 작성은 클로드(Claude)로 수행합니다. 제미니와 노트북LM에서 분석된 내용을 클로드에 넣어 문장을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교정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SNS 게시물 작성도 클로드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워크플로우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LM에서 분석할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소스로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노트북LM에게 보고서 목차와 세부목차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차가 확정되면 각 세부 목차 키워드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 서술을 요청합니다. 이때 분량 조절이 중요한데, 1페이지는 대략 1,000자 분량이므로, 5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5,000자 분량으로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노트북LM이 초안을 작성하면, 이를 구글 제미니로 가져가 팩트를 체크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클로드에 넣어 변론 요지서, 의견서, 보고서 등의 적절한 문체로 다듬어 최종본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3단계 워크플로우(노트북LM → 제미니 → 클로드)를 통해, 기존에 수일이 걸리던 대규모 법률 자료 분석과 전문 보고서 작성을 수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6 실전 활용을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 요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AI**를 활용한 전체 업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제미니나 클로드에게 구글 검색 **URL** 또는 유튜브 검색 **URL** 목록 생성을 요청합니다.

둘째, 크롬 브라우저와 그래빗을 활용하여 생성된 **URL**들을 열고,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일괄 추출하여 노트북**LM**의 소스로 대량 등록합니다.

셋째, 제미니와 노트북**LM**을 연결하여 심화 분석을 수행합니다. 노트북**LM**이 소스 자료 범위 내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미니가 이를 보완합니다.

넷째, 필요한 분석서를 작성합니다. 목차 수립, 세부 서술, 분량 조절 등을 노트북**LM**과 제미니를 통해 진행합니다.

다섯째, 클로드를 활용하여 유려한 최종 보고서나 토론 자료를 만듭니다.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설득력을 높이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섯째, 이미지 관련 자료는 나노바나나**(Nano Banana)** 등 이미지 생성 도구로 별도 처리하고, 노트북**LM**에는 텍스트 부분만 넣어 활용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숙달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법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성 높은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제12부 프롬프트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때

프롬프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창한 용어까지 등장하니, 마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말하면 됩니다.

카페에서 친구에게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짐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걱정이야. 비용은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업체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AI에게도 그냥 주절주절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희망사항과 조건을 쏟아내면 AI가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도 없고, 체계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서없이 이것저것 덧붙이는 게 짧고 깔끔한 한 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짧게 쓰면 →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박 4일로 부산 여행을 가려고 해. 60대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건데,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많이 걷는 건 힘들어. 해산물을 좋아하시고, 바다 보이는 카페 같은 데서 쉬는 걸 좋아하셔. 숙소는 해운대 근처가 좋겠고, 하루에 두 군데 이상은 무리야. 예산은 숙소 포함 100만원 정도."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좋은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이 많았을 뿐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프롬프트가 정말 빛나는 순간은 글 대신 사진을 활용할 때입니다. 백 마디 설명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정확합니다.

동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 머릿속에 있는 영상 분위기를 글로 설명하려면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비슷한 느낌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찾아 스크린샷을 찍고, **AI**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면 됩니다. 긴 동영상이라면 시작, 중간, 끝 부분에서 **3~5**장 정도 스크린샷을 캡처해서 함께 넣어주세요. **AI**가 영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 "몽환적인 느낌의 숲 그림"이라고 쓰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나 사진의 스크린샷을 넣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요리가 궁금할 때 —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이름을 모를 때, 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뭘 해먹을지 고민될 때. 그냥 사진을 한 장 찍어서 **AI**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알려줘, 재료랑 만드는 법도 알려줘"라고 하면 끝입니다. 식당 메뉴판을 찍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냉장고 안을 찍어서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비밀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자신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글로 설명이 되면 주절주절 말하고, 글로 어려우면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자세하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 제13부 기타 알아두면 유용한 사용법

## 1. 음성/구술 방식을 통한 AI 문서 작성

**AI**의 음성 입력 기능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핵심은 흩어진 생각을 말로 풀어놓으면 **AI**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술/음성 입력을 일기, 기안문, 공문서, 편지, 책, 블로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활용법으로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AI** 음성 대화 모드를 켠 뒤, 걷기 운동하며 구상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면 **30**분 만에 기획안이 완성된다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음성 입력, **AI** 정리, 멀티태스킹, 시간 절약, 형식 변환, 효율성입니다.

## 2. 기억 환기형 AI 활용법 7가지

"그거 있잖아, 이름은 모르겠고..."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약 이름, 영화 제목, 노래 제목, 맛집 이름, 기능 이름, 옛날 간식 등 **7**가지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단편적 기억만으로 **AI**에게 설명하면 정답을 찾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흰색 딱딱한 알약, 빨간 포장"이라고 하면 타이레놀을, "디카프리오, 꿈속의 꿈"이라고 하면 인셉션을 찾아줍니다. 핵심 메시지는 머릿속 흐릿한 기억을 그냥 말해주기만 하면 **AI**가 나머지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 3. 일정 충돌을 해결하는 만능 스케줄러

여러 팀원의 복잡한 일정을 조율해 공통 회의 시간을 찾는 **AI**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김경진, 박지연 개발팀장, 이민호 디자인 리드, 최수정 **PM** 등 **4**명의 각기 다른 가용 시간과 제약 조건(점심시간, 경영진 회의, 화요일 오후 전체 회의 불참 등)이 주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2025**년 **10**월 **6~10**일) 중 **2**시간짜리 오전 회의 시간을 찾고, 가능한 **3**개 옵션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며, 각 옵션의 장단점 설명과 함께 **Google Calendar** 초대장 초안 및 회의실 예약 요청 메시지까지 작성하라는 복합적 요청입니다.

# 제14부 그림 시각화와 인공지능 인포그래픽

업로드하신 이미지들은 나노 바나나 프로(**Nano Banana Pro**)의 이미지 편집 활용 사례(여권 사진 생성, 프로필 이미지 변경)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NotebookLM**의 인포그래픽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NotebookLM 인포그래픽 기능이란

**Google NotebookLM**은 **Gemini 3**와 **Nano Banana Pro**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노트, **PDF**, 연구 자료를 전문가 수준의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 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5**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이 기능은 **NotebookLM**을 수동적 연구 도우미에서 능동적 콘텐츠 생산 엔진으로 전환시킨 근본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디자인 도구(**Canva, PowerPoint** 등) 없이 **AI**가 소스 자료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 2. Nano Banana Pro

**Nano Banana Pro**(**Gemini 3 Pro Image**)는 **Google**의 최신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로, **2025**년 **11**월 **20**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Midjourney, DALL-E** 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Gemini 3 Pro**라는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 위에 구축되어 있어, 이미지 안의 텍스트를 실제로 '이해'하며 렌더링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다국어 텍스트(한글 포함)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인포그래픽에 들어가는 라벨, 제목, 주석이 읽기 쉽게 생성됩니다.

**NotebookLM**에서 인포그래픽을 생성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기존 노트북을 열거나 새로 만들어 소스를 업로드한 뒤, 스튜디오(**Studio**) 패널에서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버튼만 클릭하면 **AI**가 최적의 형태로 자동 생성하는 원샷(**One-shot**) 방식이고, 둘째는 편집 버튼을 눌러 스타일 가이드라인에 접근하여 출력 언어, 상세도, 방향(가로/세로) 등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입니다. 생성에는 보통 **2~5**분이 소요되며, 그 사이 다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로 형식(**16:9**)은 **LinkedIn** 포스트, 블로그 헤더, 이메일 캠페인에 적합하고, 세로 형식(**9:16**)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틱톡 콘텐츠, 모바일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시나리오로는 연구 논문의 핵심 프레임워크 시각화, 장문 보고서의 한 장 요약, 교육용 개념 설명 인포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소스(스크린샷, 차트, 사진 등)를 업로드하고 **AI**가 이를 종합하여 요약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포그래픽이 한 장짜리 시각 요약이라면, 슬라이드 덱은 전체 소스를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NotebookLM**에서 슬라이드 덱을 만들 때는 **Nano Banana Pro**의 시각적 역량과 **NotebookLM** 자체의 창작 에이전트가 결합되어 작동합니다. 독립형 상세 슬라이드와 **TED** 스타일의 발표자용 슬라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브랜드 스타일링 적용, 데이터의 메타포 시각화, 만화 스타일 변환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업로드하신 이미지들은 **Nano Banana Pro**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여권 사진 생성"은 일반 사진을 여권 규격에 맞게 보정하는 사례입니다. 프롬프트는 "이 사진을 여권 규격에 맞게 보정해 줘. 정면을 응시하도록 하고, 양쪽 귀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줘.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으로 변경해 줘."로, 심지어 없는 귀를 만들고 표정까지 변경하는 수준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세 번째 슬라이드 "프로필 이미지 변경"은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프로필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례입니다. 프롬프트에서 턱 선 보정, 어깨 라인 조정, 배경을 파스텔 톤 단색으로 변경하는 등 세밀한 편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Nano Banana Pro**가 단순한 이미지 생성을 넘어 기존 사진의 정밀 편집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인포그래픽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청중, 색상 테마, 정보 계층 구조, 스타일 방향을 명시하면 훨씬 정교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색상 테마를 사용하여 **AI**가 직장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요약하는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해 줘. 세 가지 축을 강조해 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트북 수준에서 페르소나를 설정(설정 아이콘 → 노트북 구성)하면 스튜디오 출력에도 약 **75%**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료/유료 차이와 제한 사항

무료 계정은 노트북당 몇 개의 비디오, 슬라이드 덱, 인포그래픽만 생성할 수 있는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Google One AI** 프리미엄 구독(월 **$19.99**)을 하면 더 높은 할당량을 받습

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AI**가 생성한 것이므로 시각적 또는 사실적 부정확성이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된 인포그래픽은 **PNG**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공유 링크를 통해 배포도 가능하지만, 이미지 형태이므로 개별 요소의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 맺음말

이 책의 원고를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AI 기술은 쉬지 않고 진화했다. 집필을 시작할 때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이 탈고 무렵에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고, 초고에서 '미래의 가능성'으로 서술했던 내용을 '현재의 현실'로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속도감 자체가 법률가들이 AI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웅변한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1995년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판례 검색은 두꺼운 판례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일이었다. 법령의 개정 이력을 추적하려면 관보를 뒤져야 했고, 수사 기록 수천 페이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오로지 시간과 체력의 문제였다. 그로부터 30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면 수만 건의 판례에서 가장 유사한 선례를 찾아주고,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에서 리스크 조항을 식별해주며,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주는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의뢰인의 눈을 마주보며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다. 냉정한 법리 뒤에 숨겨진 당사자의 절박함을 읽어내는 것, 승소 가능성의 수치 너머에 있는 인간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 법률가로서의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신할 수 없다. AI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이며, 그 벌어들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필자는 그 시간이 더 깊은 법리 연구, 더 세심한 의뢰인 상담, 더 창의적인 분쟁 해결 전략에 쓰이기를 바란다.

실무적인 당부도 덧붙이고 싶다. AI를 처음 활용할 때는 반드시 작은 업무부터 시작하기를 권한다. 간단한 판례 요약이나 회의록 정리처럼 결과물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감을 익힌 뒤, 점차 서면 초안 작성이나 증거 분석 같은 고난도 업무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AI의 산출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라. 반드시 자신의

전문적 판단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법률가의 기본 자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실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피드백을 아끼지 않은 동료 변호사들, 기술적 검증에 힘을 보태준 AI 전문가들, 그리고 법률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늘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법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이고, 법률가는 그 안전망의 직조자다. AI라는 새로운 실이 우리의 직조를 더 촘촘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이 그 시작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경진

법률업무와 인공지능

전자책 발행 | 2026년 2월 25일

저 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 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ISBN | 979-11-24360-05-7

가격 : 15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속의 사진 이미지 그래프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